제2강 만주 버들여신과 유화, 그리고 서천꽃밭

가. 버들여신 푸투마마와 유화의 이름에 숨겨진 코드

○ 익숙한 이야기1

-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먼 길을 떠난다.
- 길을 가다가 목이 마를 무렵,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된다.
- 우물가의 여인은 물을 긷다가 주인공에게 물을 한 바가지 건네준다.
- 바가지 안에 담긴 물 위에는 버들잎이 떠있다.

► 왜 하필 '버들잎'일까?

○ 익숙한 이야기2

- 유화柳花는 수신水神하백河伯의 딸이다.
- 천제의 아들 해모수가 웅심산 아래 압록강 가에서 유화를 유인하여 사욕을 채우고 떠난다.
- 부모가 유화를 우발수로 보냈다.
- 금와왕이 유화를 데려다가 방에 가두었는데, 햇빛에 감응하여 알을 낳았다.
- 알에서 나온 아이가 바로 주몽, 활을 잘 쏘았다.

► 왜 주몽의 어머니 이름에는 '버들'이 들어가 있을까?

○ 낯선 이야기1

- 푸투마마(fodomama)는 버들여신이다.('푸투'= '버들가지')
- 푸투마마는 만주족 아이들의 수호신이자 어머니이다.
- 봄이 되면 조상신을 모신 곳에 있는 '자손주머니'에서 긴 줄을 꺼낸다.
- 그 안에는 긴 '자손 줄'이 들어있는데 그것이 바로 푸투마마의 상징물이다.
- 그 줄을 꺼내어 마당에 세워놓은 싱싱한 버들가지에 묶는다.
- 주머니에서 꺼낸 긴 자손줄에 오색 끈과 헝겊 등을 묶는다.
- '줄 바꾸기[換鎖]'의례를 거행한다.

►아이들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버들여신의 줄

○ 낯선 이야기2

- 대흥안령 산맥 일대에 살다가 청나라 건륭제 때 신장위구르로 강제 이주당한 민족이 있다.
- 시보족[錫伯族]이 그들인데, 그들에게는 '시리마마'에 관한 신화와 의례가 있다.
- 시리마마는 역시 마을과 아이들의 수호여신이다.
- 시리마마가 화산을 폭발시킨 요마를 물리치고 마을을 구해낸다.

시리마마의 상징물 역시 집안에 매달아두는 긴 끈이다 .('시리'= '연속')

시리마마에 매달린 '가라하'(양이나 사슴의 무릎뼈)는 '대代'를 의미한다.

► 푸투마마의 자손줄과 시리마마 줄의 의미는?

"나는 당신의 잎에서 싹트고 당신의 뿌리에서 나온 자손입니다."

"하늘이 물과 닿고/ 물이 하늘과 닿았던 시절

세상은 물로 가득 차 인간은 살 수가 없었네

아부카허허, 세상에 버들가지를 던져

살아있는 영혼들을 구했다 하네

희고 반짝이는 물이 온 세상을 뒤덮어

세상 만물이 사라졌네

천신(아부카언두리)이 몸의 때로 만든 인간도 모두 사라지고 단 하나 남았지

그가 물에 휩쓸려 빠져죽기 직전,

어디선가 버들가지가 나타나 그를 태워주었네

물이 반쯤 들어찬 동굴에 이르렀을 때

버들가지가 여인으로 변했지

그와 혼인하여 아이 낳으니 세상엔 다시 사람이 생겨났다네"

(* 우리나라 목도령 전설과의 차이점은?)

"아부카허허가 예루리와 싸울 때,

착한 신들 모두 죽어 아부카허허가 하늘로 도피하네

예루리가 바짝 뒤쫓아 와 아부카허허 다리를 잡아 당겼네

그러나 예루리가 잡은 것은 아부카허허를 뒤덮고 있던 한 움큼의 버들잎,

버들잎이 인간세상으로 휘날리며 떨어져 모두가 사람이 되었다지"

나. 제주, 여신의 땅, 꽃의 신화

○ 꽃의 여신[화파花婆]이 가꾸는 천상의 꽃밭

광시좡족자치구[廣西壯族自治區]는 일 년 내 고운 꽃들을 볼 수 있는 곳이다. 설이 지날 무렵이면 검은 가지에 커다란 주홍빛 꽃(목면화)이 갑자기 피어난다. 광둥성 광저우[廣州]의 시화이기도 하고 광시좡족자치구 난닝[南寧]의 가로수이기도 하다. 그 꽃은 좡족의 시조인 부뤄퉈신을 수호하는 용사의 영혼이 변한 것이라고 한다. 그는 언제나 손에 횃불을 들고 싸웠다고 한다. 그래서 그 나무를 '영웅수'라고도 한다. 꽃과 관련이 깊은 곳에서 꽃에 관한 신화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

좡족의 창세여신 무류자('무'-'어머니')는 꽃에서 탄생한다. 무류자는 제주도의 설문대할망처럼 거인 여신이다. 여신이 내쉰 숨이 위로 올라가 하늘이 되고, 하늘에 구멍이 났을 때 솜으로 틀어막은 것이 구름이 되었다. 땅이 하늘보다 커서 크기가 맞지 않으니 땅의 가장자리에 바느질을 하여 실을 잡아당겨 주름을 잡아 하늘과 땅의 크기를 맞추었다. 그뿐인가, 두 발로 각각 거대한 산을 딛고 서서 바람을 맞으며 오줌을 누었는데 축축해진 흙을 , 빚어 인간을 만들었다. 또한 무류자의 생식기가 커서 인간과 동물들이 폭풍우가 몰아치면 무류자 여신의 생식기로 들어가서 숨었다.

이러한 창세여신 무류자가 시간이 흐르면서 꽃의 여신으로 변하게 된다. 여신이 기르는 천상의 꽃밭에는 두 가지 빛깔의 꽃이 있다. 붉은 꽃과 하얀 꽃. 그리고 여신이 그것을 인간세상으로 보내주면 세상엔 아기가 태어난다. 천상의 꽃밭엔 우리 모두의 영혼 꽃이 있다.

화산花山- 여신의 공간. 죽음 뒤에 가는 곳인 동시에 생명의 공간.

화파花婆(화산성모花山聖母)- 꽃의 여신

화림선관花林仙官- 꽃감관

꽃, 생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례와 민속들이 있다.

- 꽃의 여신이 아기의 침대머리를 지켜준다

- 아기가 없는 집에서는 '꽃'을 보내달라는 의례를 거행한다.

- 아기가 아플 때엔 영혼의 꽃을 치료한다.

- 아기를 업는 띠

"꽃이여, 꽃이 하늘에서 내려오네/ 우리 집에 돈도 쌀도 다 있으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꽃이여/ 꽃이여, 수세미 울타리에 자라나기를/ 송이송이 방글방글 웃으며, 이제 집이 있으니/ 꽃이여, 수세미 울타리에 자라나기를/ 하얀 꽃(여자아이)이 아니라 붉은 꽃(남자아이)를.."

"나는 꽃의 여신, 꽃을 뿌리네/ 가져가는 사람 자손이 흥할 거야/ 꽃을 받으면 아녀자는 기뻐하지/ 내년에 통통한 아기를 낳을 수 있으니/ 나는 화산의 꽃 여신/ 꽃의 여신 자상하기도 하지/ 누구든지 내게 꽃 가지러 오면/ 자손만대 흥성하게 해줄 것이니.."

"우리 아기 착하기도 하지 / 착한 아기 잘 나오너라

우리 아기 온 산에 핀 꽃의 자손

우리 아기 온갖 꽃의 꽃가루가 만들었지

아기를 키우는 항아리에서 자라나서 / 어머니 몸을 통해 나오는구나

내가 너를 데리고 다리를 건너마 / 그곳에 가서 다시 번성해라

나무들은 비옥한 땅이 있어야 자라고 / 꽃들은 나무가 있어야 피어나지

너는 꽃의 후손 / 너는 열매들의 후손"

○ 제주도의 서천꽃밭

제주는 여신들의 땅. 자청비, 가믄장아기, 백주또, 설문대할망 등.

만주 신화 속의 여신 세계가 제주에도 남아있다.

서쪽 아득한 곳에 있다는 서천꽃밭.

삼승할망 맹진국 따님애기가 오방색의 꽃을 피우는 신성한 공간.

태어나기 전의 영혼들이 꽃의 모습으로 자라고 있는 곳, 15세 이전에 죽은 아이들의 영혼이 올라가 다시 꽃이 되는 곳.

사랑하는 남자 문도령을 살리기 위해 자청비도 가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 신산만산할락궁이와 녹디생이를 비롯한 여산부인의 일곱 아들도 가는 곳. 신들의 영역에 속해있으면서 인간에게도 진입을 허락하는 특이한 공간, 그곳이 우리나라 신화에 등장하는 서천꽃밭.(주호민 작가의『신과 함께』)

○ 신화 속의 꽃/ 현실 속의 꽃

원래 꽃을 피우는 식물들 중 300년 이상을 사는 식물은 거의 없다.

침엽수들보다 더 빨리 영양분을 땅에게 돌려주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은 지구를 비옥하게 해주었다. 꽃과 열매를 맺어 다른 생명체들을 먹여 살리고, 스스로 떨어져 기름진 땅을 만들어주는 꽃나무들은 그 자체가 너그러운 어머니의 모습이다. 그러나, 그런 꽃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던 적이 있다(네덜란드의 검은 튤립, 당나라의 모란)

"네덜란드의 검은 튤립 사건의 전말을 들여다보면 튤립이 갖고 있는 '꽃'으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고 인간의 탐욕만 넘쳐흐른다. 여신이 가져다주었던 '생명'으로서의 '꽃'은 거기 없다. 그들만의 파라다이스에 피어나 끓어오르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대상이 되어버린, 박제가 된 꽃만이 존재한다.....검은 튤립과 낙양의 모란이 양의 화폐에 몰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한, 꽃의 신화는 향기를 잃는다. 말벌과 같은 거대한 투기 자본에 몰려 건강한 음의 화폐를 사용하는 꿀벌들이 죽어가는 세상에서는 꽃이 살아남지 못하고, 그런 세상에서는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여신의 영혼의 꽃밭은 텅 비게 될 것이고, 여신은 더 이상 세상에 아기를 가져다 줄 수 없게 될 것이다."(김선자, 『오래된 지혜』)